

도시관리공단 설립 본격

익산시, 타당성 검토 용역 착수... 연말 결과나와 공공시설물 통합·전문 관리로 서비스 질 향상

익산시는 시 위탁 및 직영 공공시설물을 통합으로 관리하는 도시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에 본격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시 공공시설물은 최근 10년간 30여개 넘게 증가했고, 앞으로도 서부권 다목적체육관, 장애인(반도체)체육관, 공공승마장, 마동테크노스퀘어 등이 구축되면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가 보다 절실해진다.

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공단 설립 추진을 결정하고, 전문인력으로 인한 전문성 저하 등 문제점 발생에 대비해 지난 해 말 타당성 용역비 9천만원을 확보했다. 시는 법적 요건인 경상수지 50%이상

되는 사업을 먼저 선정해 전라북도와의 협의를 마치고, 행정안전부 지정 타당성 전문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해 올해 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타당성 검토에서는 대항 사업에 대한 경제성분석, 공단운영에 따른 장·단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장기 발전 전략 제시 등 공단 설립에 대한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이후 주민공청회, 전라북도 2차 협의, 조례 제정, 정관 등 제규정, 설립 등기 행정절차 등 밟으며 2022년 설립을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도시관리공단은 자치단체의 업무를 전문성과 기술성을 살려

대행하는 공공업무 대행기관으로 자치단체에서 대항 사업비를 받아 운영 하므로 사업이 비수익적이기는 하나 경영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한다.

특히 매년 행안부에서 경영평가를 통해 공단 운영 및 이사진에 대한 업무성과 평가를 받기 때문에 부실 경영에 대한 위험이 희박하며 안정된 조직 경영 형태라는 입장이다.

또한 공단 운영은 지방공기업법과 조례에 의해 시 의회의 감사권과 시의 감독 하에 운영되며 직원 채용사에도 전문기관 대행을 통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 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 지방공기업은 405개이며, 공공시설물 관리 지방공기업은 243개 자치단체 중 105개 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이다. 현재 원주시, 영천시를 비롯하여 10여개 자치단체에서 공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시는 지난달 30일 철도관사마을의 '사회적 경제조직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 주민 협의체와 삼천도시대학협의회 간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익산 창인동 철도관사마을 '마을기업' 성장 발판 마련

삼천도시대학협의회와 사회적경제 조직 구축 업무 협약

익산시가 추진하는 새마을 사업 중 하나인 창인동 철도관사마을의 주민들이 향후 마을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시는 지난달 30일 철도관사마을의 '사회적 경제조직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 주민 협의체와 삼천도시대학협의회 간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삼천도시대학협의회(대표 허정)는 '우리들 스스로 만드는 좋은 동네'라는 슬로건으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구성해 하트 모양 막걸리 빵을 개발해 수익을 내는 등 전국 각지에서 도시 재생 선진사례로 벤치마킹을 오는 예비 마을 기업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철도관사마을

주민협의체의 지역 상품 개발 및 판매를 위한 법적 절차와 상호간 사업을 공유하며 자생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시는 마을 주민협의체가 생산 중인 수제청과 비누 만들기 체험 등을 특화상품으로 판매하면 향후 마을기업으로 성장해 도시재생의 중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성도 도시재생과장은 "도심 속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낙후되었던 철도관사마을이 민관이 합심해 새마을 사업을 열정적으로 추진한 결과 살기 좋은 마을로 탈바꿈되었으며,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지속적으로 향상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밤 푸드존' 경관조명 설치로 야간낭만 더해

군산시, 백년광장 일원 4일부터

군산시가 백년광장 일원 군산밤 푸드존에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하며 관광객들의 볼거리를 더하고 있다.

군산시는 최근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관광환경 개선사업 일환으로 백

년광장 일원 군산밤 푸드존에 야간경관 조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진포해안테마공원 공용주차장에 조성된 "군산밤 푸드존"을 찾는 체류형 야간 관광객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진행한 것으로 다양한 빛 조형물을 설치해 침체되어 있던 공간

을 환하게 밝혔다.

먼저 푸드존 입구 양쪽에 백조 두 마리가 머리를 맞대고 있는 모습의 조형물과 군산밤 푸드존의 상징인 초승달 조형물을 설치했다.

I LOVE GUNSAN' 과 WELCOME TO GUNSAN' 이 적힌 두 조형물은 푸드존 입구를 밝게 밝혀주며,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아 포토존뿐만 아니라 군산밤 푸드존의 상징적 조형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푸드존 공간에는 길이 36m의 빛터널을 설치했다. 노랑, 보라색의 수천 개의 꼬마전구를 매달아 반짝이는 별빛과 움직이는 파도를 형상화하여 일몰 후에도 관광객들이 아름다운 별빛조명 아래서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도록 조성했다.

또한 푸드존 맞은편 백년광장에 조성되어 있는 가차 모형 포토존과 마치 별빛이 떨어지는 듯한 느낌의 조명을 매달은 천년나무 등 기존 야간경관 조형물과 어우러져 백년광장 일대를 한층 돋보이게 만들었다. /군산=김판근 기자



군산시가 백년광장 일원 군산밤 푸드존에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하며 관광객들의 볼거리를 더하고 있다.

"코로나 시대 식사문화 개선" 군산지역 식당 눈길

코로나19와 관련해 군산지역에서 식사문화 개선을 이끌고 있는 식당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1일 군산시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다중이용 시설 중 식당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식사문화 개선을 이끌고 가고 있는 식당이 있다.

이들 식당은 생활 방역에 식중독 예방은 물론 식당에서도 개인접시 활용, 생수 1번이용, 주기적 소독, 마스크 착용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위생 관리를 물론 식당 이용객들에게도 호응을 얻고 있다. /군산=김판근 기자

"친환경농산물 판로 개척 · 예산지원 방안 마련"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행감

익산시의회(의장 조구대)는 오는 6월 11일까지 진행되는 제226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에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추진사업에 대하여 세심하게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태열 산업건설위원회장은 학교급식으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던 농가들이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농가들이 친환경 농산물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친환경 농산물 판로 개척 및 예산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식 의원은 왕궁리 유적과 미륵사지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 문화유적이 위치상 분산되어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접근성 제고를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며, 공유재산거를 이용한 문화재 탐방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형택 의원은 익산시가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해 청소년증 환인가맹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 청소년들은 스마트폰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청소년증을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동연 의원은 소득원개발육성기금 신청실적이 저조한데 많은 농업인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하기 바라며, 미회수기금으로 인해 연체가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대책검토를 통해 적극적으로 처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사랑 선불카드 '맞춤형' 배부 호응

군산시가 요양병원 장기입원자와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등을 위한 맞춤형 찾아가는 선불카드를 지급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산시는 지난달 4월 13일부터 현장배부 및 등기발송 배부는 25만8,035명으로 96.1%의 배부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거주불명 등록자 제외국민자를 제외한 8,209명은 아직 군산사랑 선불카드를 찾아가지 않았다.

이에 군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접근이 어려웠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군산사랑 선불카드 찾아가는 맞춤형 배부를 시행한다.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 19로 인해 출입이 제한된 요양병원 장기입원자, 거동불편자,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방문 접수 및 배부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군산=김판근기자

익산시, 어린이집 휴원 해제

익산시는 그동안 휴원했던 관내 188개소 모든 어린이집에 6월 1일부터 휴원을 해제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적으로 어린이집이 휴원함에 따라 보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를 위해 긴급 돌봄 체계를 구축·운영해왔다.

시는 휴원 해제에 대비해 방역 현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정상 운영 중에도 아동과 보육교직원 등 1일 2회 발열체크, 아동 하원 후 매일 보육실 교재교구, 체온계, 의자 등 자체 소독, 수시 소독 및 주기적 환기 등 방역 지침을 지속적으로 준수토록 했다.

또한 가정에서도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가정통신문을 안내한 바 있다.

그 결과 어린이집에서도 코로나 19 방역 지침을 충분히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장양원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